

20대의 금융 집짓기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이들의 경제적인 관심은 미혼은 결혼 자금이고, 기혼은 주택구입자금마련입니다. 물론 남자들의 경우 자동차구입을 1순위로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 타당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남녀공히 결혼자금과 주택구입자금입니다. 돈이 잘 모이지 않는 성향이 가장 높습니다. 모바일에 강한 세대가기 때문에 금융 정보가 많아서 다른 세대에 비해 재테크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아마도 2030대에는 A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득도 불규칙하다보니 미래에 대한 밝은 청사진보다 부정적인 전망도 많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됩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에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고 용기를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풍선의 바람이 빠지면 계속 바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야 합니다. 사람도 일을 하다보면 지치고 힘이 빠집니다. 그럴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영화도 보고, 바람도 씩니다. 계획을 가지고 노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위대한 일을 한가지씩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에는 결혼도 준비해야 하고, 주택 마련, 노후준비 등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알뜰하게 저축을 하고 싶지만 주위에서 추천하는 금융상품도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채테크 서적과 강연 등을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해 보지만 저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욱 어려워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상품을 나올 때마다 세제혜택이며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상품들을 가입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가입하면 돈이 모이고 부자가 될 것 같지만,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잘했나 싶어 갈등을 하다 기존 상품을 중간에 해지하고 신상품에 가입하게 되어 결국에는 손해를 보니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할 몇 가

지 금융상품이 있는데 가장 필수적인 상품이 실손보험입니다. 그리고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이고, 세제적격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저축과 세제혜택의 효과가 동시에 있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지인인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상품이 여럿인 사람도 많아 기존 보험상품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전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고려한 합리적인 실비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과 같은 대출상환에 돌입합니다. 노후준비로 세액공제연금을 가입합니다. 만약 대출이 없다면 목적지금을 하는데 보통 이 시기에는 본인의 결혼 자금을 준비하게 되고, 기간은 3-5년, 금액은 5천만원정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젊은 가정의 경우에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보험도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집짓기를 미리 미리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원태금융연구소 대표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청소년 금융진로 캠프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 14일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블루마운틴컨트리 클럽에서 '2018미래에셋 청소년 금융진로캠프'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전교생 30명 미만인 3개 중학교 학생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체험형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을 쉽게 익히고 본인의 비전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



미래에셋대우, 희망체인리더 1기 발대식
미래에셋대우는 15일 '임직원 주도의 혁신적 사회공헌' 희망체인리더 1기 발대식을 14일 진행했으며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임직원으로부터 나온 혁신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70명의 희망체인리더를 위촉했다. /미래에셋대우

지대섭 이사장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대섭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화재보험협회는 지대섭이사장 취임 이후 종합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의 역량 확보를 위해 업무영역을 붕괴, 환경오염, 풍수해까지 확대했다. 또 사고통계를 기반으로 한 안전점검 시스템 도입과 민간기준인 한국화재안전기준의 제·개정 확대하는 등 기술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다.

지대섭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시야를 외부로 넓혀 고객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경쟁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

지, 기술적인 추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고객의 요구보다 한발 앞서 대처하자”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 등 지식자산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



바른전자-취경공고, 바른스쿨 발대식
종합반도체 전문기업 바른전자는 최근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취경공업고에서 바른스쿨 운영에 관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바른전자 사회공헌부 임직원과 취경공고 교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발대식에서는 청소년 진로교육 전략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바른스쿨 운영을 계기로 장기적인 산학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바른스쿨' 발대식 및 취경공고 교직원 간담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른전자



가구단체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쌀 3000kg 기부
가구 관련 단체들이 가구의 날을 맞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쌀 3000kg을 기부했다. 가구단체가 사랑나눔재단에 쌀을 기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6년부터 매년 5월 열리는 가구의 날 행사에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여주컨트리클럽에서 열린 '가구·자선 골프대회'에서 한국주택가구조합 이기덕 이사장, 한국곡식가구연합 노재근 회장,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대한가구산업연합 김계원 회장, 한국가구산업협회 박재식 회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구단체

스승의 은혜는 땅 위에 있다



기저 수집

이범중 (정책사회부)

스승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교육도 서비스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교사들은 쏟아지는 카카오톡 문에 시달려야 한다. 해일처럼 밀려오는 잔업에 허우적대다 보면 일 년이 금방 지나간다. 교사는 하루가 멀다고 변하는 입시와 지침에 말라간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고등학교 재직 시절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작성 방식에 관여하는 학부모들 때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부 작성 지침도 자주 달라져, 수정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특정 부분에 적으라던 '-' 표시는 '~' 표기로 지침이 바뀐다. 한컴오피

스에서 따옴표를 적으면 규정위반이지만, 엑셀에서 썼다면 문제없는 식이다.

선생님의 헌신을 알기에, 제자들은 여전히 스승의 날 선생님에게 인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반면, 어떤 스승은 법정에서 쫓겨났을까 고민해야 했다. 지난 3일 김복만 전 울산시 교육감 부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울산시 교육청 관급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억8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 중 1억4000만 원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조영철 부장판사가 착잡한 표정으로 양형 이유를 읽는 동안, 김 전 교육감의 아내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김 전 교육감의 고개는 땅에 꺼진 듯 보이지 않았다.

징역 7년과 5년. 남편과 아내는 스승의 날을 보름 앞두고 젖은 눈으로 방청석을 돌아봤다. 그의 가족이었을까. 고통의 여인은 의자를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 한때

하늘에 있던 스승의 은혜가 권세로 이름을 바꿔 단 결과였다.

내가 기억하는 5월은 선생님이 경의를 받는 시간이었다. 담임선생님은 제자의 안목으로 골랐을 리 없는 책 한 권을 받아 들고, 그 사이에 꽃힌 봉투 하나를 손에 쥐셨다.

걱정만 호기심 반으로 펼친 봉투 안에는, 어김없이 감사 편지가 들어있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부모님의 인사를 읽던 선생님의 미소. 이날 선고와 죄명이 유독 슬픈 이유였다.

스승의 은혜는 대지에서 피어난다. 지난 겨울 찾은 고등학교 교사의 집에선 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띄었다. '(제자들이) 말은 잘 듣느냐'는 물음에 "애들 다 착해"라며 웃는 그의 얼굴에는 어떤 권위나 이권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우리 선생님'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joker@metroseoul.co.kr

인사

-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관 변상현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전략실 고용서비스 UX TFT 팀장 김균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ICT 통상·남북협력센터장 남상열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전윤중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고용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건설안전과장 장순웅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관리과장 서경숙 △항공교통본부운영지원과장 이재명
- ◆한국관광공사 △FIT유치지원팀장 박인식△마

나라지사장 조준길
◆한국항공우주산업 △관리본부장경재경실장전무 문석주

부음

- ▲정인웅 씨 별세, 정재승(진주조 이사) 재형(조선비즈 국제부장) 다연(주부) 씨 부친상, 양화천(빛을림한의원 원장) 씨 장인상 = 15일 오전 1시, 목포 효사랑장례식장 201호, 발인 17일 오전 8시. 061-242-7000
- ▲김광한씨 별세, 김재동(스타뉴스 부국장 겸 선임기자)씨 부친상 = 15일,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백합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43-298-9200
- ▲송맹인씨 별세, 김병순씨 남편상, 송경훈(제주항공 홍보팀장)·경준(청신상사 이사)씨 부친상, 김지형(백록초교 교사)씨 시부상 = 14일 오후 11시 50분,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2분향실, 발인 17일 오전 7시, 장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선영. 064-730-3710
- ▲조중현씨 별세, 조택모(탑스카우트 대표) 택양택일(LG전자 CTO부문 컨버전스센터장) 택홍씨 부친상, 조은지(YTN 기자) 씨 조부상 = 15일 오전,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7일 오전 6시. 02-2258-5940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고석 대표(왼쪽)와 타계무라 노부유키 한국도요타 사장.

한국도요타자동차 어린이 안전·환경교육

한국도요타자동차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교실'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교실'은 한국도요타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도요타 에코&세이프티 아카데미'에 한국어린이 안전재단의 찾아가는 안전교육 노하우를 더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규모를 키워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양성문 기자 ysw@

| | |
|--|---------------------------------|
| metro 메트로미디어 | |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1721-9800, FAX: 021730-1551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 편집국장 |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김교준 |
| 광고문의 | 021721-9851, 9826 |
| 독자센터 | 021721-9861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3957호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51호 |